

DALL-E와 썸트렌드를 활용한 조선시대 민화 아트메이크업 작품 디자인 개발 -문학적 환상성을 중심으로-

이유림*, 김장현**

*삼육보건대학교 글로벌융합학과, **화성의과학대학교 스타일테크학과
e-mail: jhk22@hsmu.ac.kr

Development of Fantasy-Inspired Art Makeup Designs Based on Hwajodo Folk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Using DALL·E 2 and SomeTrend — Focusing on Literary Fantasticality

Yu-Rim Lee*, Jang-Hyeon Kim**

*Dept. of Global Convergence, Sahmyook Health University

**Dept. of Styletech,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 장르인 화조도, 초충도, 영모도의 시각적·상징적 특성을 기반으로, 문학적 환상성 개념에서 파생된 '경이성(strangeness)'과 '괴이성(the uncanny)'을 분석하고, 이를 DALL·E 2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화한 뒤,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전통 회화의 상징성과 현대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통 민화의 조형 언어와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적 범주와 조형 언어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둘째, 문학적 환상성의 중심 요소인 경이성과 괴이성이 각각의 민화 장르 기반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시각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자연미의 과장, 미시 세계의 기묘한 확대, 동물성과 인간성의 이중 이미지 등을 통해 심리적 몰입과 감각적 낮섬을 유도하였다. 셋째, 얼굴이라는 공간에 구현된 시각 서사는 단순한 미용적 표현을 넘어 전통문화의 해석, 예술적 서사의 구현,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활용이 결합된 융합형 시각 예술로서의 아트메이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뷰티 디자인이 전통 회화, 문학적 상상력, AI 기반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동시대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1. 서론

현대의 아트메이크업은 단순한 뷰티 표현을 넘어, 예술과 이야기, 문화적 정체성이 결합된 서사적·상징적 시각 예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생성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창작이 보다 정교하게 구현되며, 뷰티 디자인의 표현 방식 또한 예술적 실험성과 창의적 조형성을 중심으로 다층화되고 있다. 한편, 한편, 조선시대 민화는 민중의 삶과 정신이 응축된 대표적인 실용 예술로, 전통적 미감과 대중적 기호가 조화를 이루는 시각문화의 보고(寶庫)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화의 주요 장르인 화조도(花鳥圖), 초충도(草蟲圖), 영모도(翎毛圖)에 주목하였다. 화조도는 자연의 생명력과 길상적 상징을 꽃과 새를 통해 표현하며, 초충도는 풀과 벌레의 관계를 통해 미시적 자연 질서를 보여주고, 영모도는 새, 짐승 등 날짐승의 생동감을 통해 강인함과 정서를 시각화하는 회화 장르이다. 이들 세 가지 장르는 모두 전통적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환상

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시각적 상상력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화의 조형성은 익숙한 자연물에 상징과 이야기를 입히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비일상적 세계관을 암시함으로써 문학적 환상성이 지향하는 '경이성'과 '괴이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민화의 화조도, 초충도, 영모도를 중심으로 환상적 상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DALL·E를 통해 이미지로 시각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문학적 환상성의 미학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메이크업이 전통과 디지털, 현실과 환상, 미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각예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문학적 환상성의 개념, 조선시대

민화(화조도, 초충도, 영모도)의 조형적·상징적 특성, 그리고 DALL·E 2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환상성 기반 디자인의 이론적 정당성과 생성 기술의 미학적 응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소셜 데이터 기반 감성 분석 플랫폼인 SomeTrend를 활용하여 민화의 세 장르에 대한 현대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과 연관 키워드를 추출·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 시각 언어와 현대 트렌드 감성 간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디자인 방향 설정의 실증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앞선 이론적·데이터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적 환상성의 핵심 요소인 ‘경이성’과 ‘괴이성’을 반영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을 위한 프롬프트(prompt) 문장을 설계하였다. 해당 프롬프트를 DALL·E 2에 입력하여 이미지 생성 실험을 수행하고, 환상적 조형성과 상징성을 중심으로 시각 자료를 도출하였다. 넷째, AI 생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제 아트메이크업을 디자인·시행하고, 생성된 이미지와 시각적 배경 요소를 융합하여 총 6개의 작품을 최종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하나의 조형 캔버스로 활용하고, 배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 언어 실험이 수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 후기 민화 양식에 기반한 세 장르(화조도, 초충도, 영모도)에 한정하였으며, 메이크업은 실제 시연과 시각화 결과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생성형 AI와 트렌드 분석 플랫폼의 적용은 실험적 탐색 수준에서 다루었으며, 디지털 기반 융합 시각예술로서 아트메이크업의 창작 가능성과 문화적 재해석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 장르인 화조도, 초충도, 영모도의 시각적·상징적 특성을 기반으로 문학적 환상성의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DALL·E 2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후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민화의 전통적 조형성과 AI 생성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미적 범주 확장이 이루어졌다. DALL·E 2는 인간의 언어적 서사와 심상을 시각 이미지로 변환함으로써, 화조도·초충도·영모도 각각의 환상적 요소를 다층적으로 구현하였다. 전통 민화의 구성 요소들은 AI에 의해 재배치되고 재조합되면서 비현실적 감각을 강화하고,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인체 위에서 새로운 내러티브적 시각 체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경이성과 괴이성의 시각적 실현이 구체화되었다. 화조도 기반 디자인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과장되거나 기하학화됨으로써 ‘낯익은 아름다움의 낯설게 보기(estrangement)’가 구현되었고, 초충도 기반 디자인에서는 미시적 곤충의 확대된 형상과 이질적 조합을 통해 기묘하고 불안한 감각(the uncanny)을 유도하였다. 또한 영모도 기반 디자인은 동물의 생동감 있는 재현과

동시에 얼굴 위의 시각적 압도감을 통해 강인함과 기괴함이 공존하는 이중적 정서를 시각화하였다.

셋째, 아트메이크업이 단순한 뷰티 실현을 넘어,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예술적 서사 구현을 위한 매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얼굴이라는 캔버스 위에 구성된 민화적 이미지들은 단순한 장식적 재현을 넘어, 시선의 흐름, 상징의 배치, 환상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서사적 메이크업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인물의 감정 표현, 배경 요소와의 관계성, 전체 색채 조화 등은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 디지털 기반 융합 시각 예술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AI 기반 생성 이미지와 전통 회화의 조형 언어, 그리고 뷰티 디자인이 융합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메이크업을 단순한 얼굴 치장 도구가 아닌 동시대 문화와 기술, 전통 감각을 연결하는 예술적 매체로 재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8020570)